



○ Norsk Hydro, 요르단 인산 프로젝트에서 철수

Norsk Hydro는 지난 3년동안 Jordan Phosphate Mine Company와 공동으로 개발해온 Hydro Agri Jordan DAP/NPK 프로젝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Hydro의 철수 결정은 다른 핵심 사업 분야에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Hydro Agri Jordan의 합작사업은 요르단 남부에 있는 JPMC의 Eshiydia 인광석 광산에 440,000 성분톤의 인산 생산시설과 Aqaba에 DAP 및 NPK 생산시설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Hydro가 그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에 Banque Nationale de Paris 및 Deutsche Bank로부터 2억5천만달러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Hydro는 Asia Pacific Potash Corporation(APPC)의 태국에서 추진중인 6억 달러 Somboon 가리 프로젝트에 소액주주로서 참여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이 노르웨이 회사는 또한 2백만톤의 가리광산 전체 생산품의 판매책임을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 생산품은 아세아 시장에 판매될 것이다.

APPC는 Somboon 프로젝트 참여 조건을 놓고 계속 Hydro 및 Bechel과 협상을 할 것이다.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81 March-April 2001 >

○ IMC Global, 상승하는 원가와 생산감축으로 고통

세계 유수의 인산 및 가리 비료 제조업체인 IMC Global(IGL)은 동사의 4/4분기 수익이 실망스러운 것이며, 전년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식 시장에 놀라운 경종을 주었다. IGL은 이러한 사업 부진을 높은 에너지 가격과 원료가격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는 국제시장에서 인산비료의 낮은 가격으로 문제점들을 더 악화시켰다.

이는 이 회사로 하여금 150만톤/년 이상 생산능력과 350만톤/년 DAP 생산능력의 시설을

중단케 했는데 IGL 총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인 것이다.

그 결과로 IGL의 기록적 실적은 예상치보다 약간 좋아졌다. 순수 운영에서 나온 수익은 2000년 12월 31일로 끝난 당분기에 \$ 1700만이었는데 이는 1999년 같은 기간의 \$ 2700만과 비교되는 것이다.

< IGL의 판매량과 평균 가격표 >

	SALES (000 s.tons)			
	Fourth quarter		Full Year	
	1999	2000	1999	2000
IMC Phosphates	1,462	1,533	6,699	6,130
IMC Potash	1,828	1,659	8,110	8,630
IMC Salt	3,217	4,552	11,511	11,826

	AVERAGE PRICE (\$/s.ton)			
	DAP	Potash	Salt	
DAP	131	138	160	134
Potash	78	79	82	79
Salt	29	26	28	27

소득은 같은 기간 6% 상승하여 총 \$ 6억5천8백60만이 되었다. 소득 증대는 동 분기중 인산비료 가격의 상승과 가리 판매량의 증가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리 판매는 1999년의 기록적인 수준으로부터 하락하였다. 이 부분은 아직도 IGL에게 있어서 이익이 나는 부문이었으며 \$ 3억의 현금 유입이 되고 있었다.

1999년의 \$ 1억6천5백70만에 비하여 해당년도의 계속 운영으로부터 나온 수익은 \$ 9천5백30만이었다.

2000년도 판매액은 전년의 \$ 28억보다 약간 하락한 \$ 26억이었는데 이것은 주로 인산비료의 가격 하락 때문이었다.

회장겸 사장인 Douglas Pertzsms 2001년도 전망에 관한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더 높아진 유휴 인산공장 비용, 낮은 인산 판매량, 인상된 암모니아 및 천연개스 가격 등을 감안해 볼때 우리의 1/4분기는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001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므로 DAP 가격 책정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 밖에도 암모니아, 천연개스 및 유황 원가가 좀 안정될 것이다.”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81 March-April 2001 >

○ 미 상무부, 우크라이나 질산암모늄 반덤핑 거론

미국 상무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어오는 요소 수입에 대하여 최초의 결정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 요소가 시장가격 이하 53%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판정하였다.(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끌어 올리려면 113%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판정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모든 질산암모늄 수입량은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동 결정은 2월 26일 공표일전 90일전까지 소급하는 것이다.

Committee for Fair Ammonium Nitrate Trade(COFANT)에 의해서 대표되는 미국의 질산암모늄 생산업체들은 예상한대로 이 판정을 환영하였다. “ 이러한 법적 결정은 불공정 거래로부터 이득을 본 사람들의 최근 정치 활동을 조망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COFANT 회장인 El Dorado Chemicals의 Phil Gough가 말했다. “ 심각하고 위해로운 덤핑이 있었다. 그것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산업에 짐이 될뿐이다 ”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질산암모늄이 실제 가격의 28%에 팔리고 있음을 알아 낸 후 지난해에 러시아 질산암모늄 수입량에 룰링쿼터를 부과하였다.

< Nitrogen & Methanol No. 250 March-April 2001 >

○ 이집트, 스웨즈에 암모니아 공장 계획

이미 Egyptian Fertilizer Co의 암모니아/요소 공장이 들어선 새로운 스웨즈 공업단지는 또한 수출위주의 암모니아 공장 건설 위치가 되었다. Kellog Brown & Root와 국내 투자회사 Bassil Osama el-Baz사이의 합작회사인 Egypt Basic Industries Company는 현장에서 260,000m³의 부지를 사들였으며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와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610,000톤/년 암모니아 공장으로서 신설 Ain Sukhna항을 경유하여 제품을 수출할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0 March-April 2001 >

○ 이집트 EFC, 요소공장 재가동

EFC는 1월에 발생한 개스관 폭발 사건 후 수리를 끝마치고 요소공장을 다시 가동시켰다.

폭발은 화염을 일으켜 동력케이블이 다 타버려서 이 공장은 수리를 위하여 수 주동안 문을 닫았었다. 실제 손실액보다 생산량이 훨씬 적었지만 EFC는 그래눌 요소 판매 130,000톤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 폭발 원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금년 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조사는 개스공급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 Nitrogen & Methanol No. 250 March-April 2001 >

○ 베트남 Phu My, 개스 공급원 모색

Petro Vietnam은 Nam Con Son 개스전과 해안 발전소로 연결되는 관련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콘서시엄과 800,000톤/년 암모니아 - 요소 공장단지를 건설하는 협상을 포기하였다.

개스 가격문제가 이 프로젝트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어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BP Amoco, Statoil, Mitsui, Tomen 및 Oil and Natural Gas Co of India로 구성된 개발 콘서시엄은 요소공장에 공급하는 개스를 위하여 \$ 3.00/mmBTU를 요구한 반면에 베트남측 파트너들은 \$ 1.50/mmBTU를 요구하였다.

Perto Vietnam은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Cuu Long에 있는 White Tiger 개스전으로부터 개스를 끌어와 Technip, Samsung, Hyundai, MHI 및 Snamprogetti에 전에 제안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의 대체 후보지로 남부의 Cam Au도 아직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0 March-April 2001 >

○ 사우디 Samad, 암모니아 공장 보수

Sabic과 Taiwan Fertilizer Co 사이의 50:50 합작기업인 Al-Jubail Fertilizer Company(Samad)는 동사의 암모니아 공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Ammonia Casale SA와 엔지니어링 및 조달계획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Samad의 암모니아 생산을 10% 증가시켜 약 433,000톤/년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추가 생산능력은 2001년 말경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공사는 Samad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에는 요소공장의 보수를 준비하고 있다.

Saudi 모회사인 Sabic은 또 다른 비료 제조사인 Ibn al Baytar(National Chemical Fertilizer Company) 또한 설계 생산능력인 500,000톤/년으로부터 583,000톤/년으로 늘리기 위하여 동사의 암모니아 공장을 보수한다고 몇 개월전에 발표하였다.

모두 합해서 위 2건의 보수 프로젝트는 Sabic의 암모니아 생산능력에 약 126,000톤/년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Sabic으로 하여금 질소비료의 성장계획을 성취시켜 줄 것이라고 비료그룹 회장 Yousef Al-Zamel은 말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0 March-April 2001 >

○ 질소질 관련 뉴스

- NFC 더 많은 자금을 간청

태국의 National Fertilizer Company(NFC)는 사주들에게 앞으로 3년동안에 baht 20억(\$ 4600만)의 새로운 자금을 출자해 줄 것을 간청하였는데 그 중에서 baht 13억은 이 회사가 금년에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필요한 자금이다. NFC의 현금 확보 위기는 높은 개스가격과 환율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Kemira, 중국 NPK 공장 가동

Kemira Compound Fertilizer는 중국 Zhanjiang 소재 200,000톤/년 NPK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하였다. 핀란드의 Kemira와 이곳 Guangdong Zhanhua Enterprise Group 사이의 합작업체인 이 공장은 광동성과 해남도의 특수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 베네주엘라 Fertinitro, 암모니아 시험생산 개시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신설 Fertinitro 공장단지는 Jose 현장에서 암모니아 시험 생산을 시작하였다. Pequiven과 미국 생산업체인 Koch 사이의 합작회사인 Fertinitro는 요소 혼합 생산능력 150만톤/년을 가진 두 암모니아/요소 공장을 갖고 있다.

- 인도측, Omifco 지불금 청산

The Reserve Bank of India는 Oman-India Fertilizer Co(Omifco)의 인도측 파트너인 Indian Farmers Fertilizer Cooperative 및 Krishak Bharati Cooperative부터의 미화 지불금을 청산하였다. 이 조치는 Oman Oil Co와의 165만톤/년 암모니아/요소 합작 사업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다. 개스 공급 및 암모니아와 요소 공급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인 폐쇄가 11월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Hydro, 손실 만회

Hydro Agri는 2000년도에 9억9천만 Krone(\$ 1억1천2백만)의 이익을 내어 1999년의 손실 \$ 2억5천만을 만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회사는 “Agri Turnaround” 계획의 일환으로 원가 절감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 Nitrogen & Methanol No. 250 March-April 2001 >

○ 미국 DAP 가격, 생산조정으로 약 보합세

최근의 미국 DAP 수출가격은 베이커의 대폭적인 생산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 보합세 경향으로 전보다 하락 기류인 것 같다. 업계측에 의하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 갈지, 이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DAP 수출가격은 작년 말쯤에 시세 하락이 분명했기 때문에 IMC, Cargill, PCS 등 주요 메이커는 올해 대폭적인 감산 조정, 재고 대책 등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나날이 개선되어 한때 저가에서 15~20\$ 가량의 상향의 실세로 되었다.

그러나 가격의 회복은 여기에서 그쳤고 그 후로는 다소 고저를 반복하면서도 기조는 내립세를 보였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에 일본에 온 미국 메이커 관계자는 DAP 가격 전망에 대해 “상승도 하락도 없는 상황으로 안정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실제의 시장 동향은 아무래도 하락 상태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고, DAP 가격은 계속 내릴 것 같으며, 재차 특별 조치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다.

시황이 약세인 것은 해외 수요, 특히 중국의 대량 매입이 감소되는 것인데 결국 해외 수요가 감소되는 한편, 신흥 세력의 DAP 생산이 본격화되는 변화의 징조가 보이고 또 재고

oo

가 아닌 새 제품이 나오는 시기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4. 25 >

○ 인도네시아, 계속되는 중지 상태로 요소 출하 불가능

인도네시아의 요소 생산 페이커인 아시안·아체와 푸꾸꾸·에스칸달무다의 요소 생산은 여전히 정지 상태로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 업계측이 말하기를 정지는 이미 1개월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요소 생산정지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반등 기회는 오지 않고, 국부적으로 약세의 시장 하락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세계 수급이 신규 페이커의 등장 등으로 가격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인도네시아 아체 등의 요소 생산 정지는 아체 특별주에 입지하는 미국계인 액슨·모빌이 민족 항쟁을 경계하여 액화 천연가스(LNG)의 생산을 중지했기 때문에 원료 가스의 준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요인이다.

LNG의 생산은 여전히 재개의 전망이 불분명한 것 같고 또 에스칸달무다는 때마침 정기 보수도 맞이했다.

여하튼 인도네시아의 아체 등의 요소는 생산 중지 상태로 재개의 전망이 불분명 할 만도 하다. 아체는 불가항력 선언으로 대외 수출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고, 에스칸달무다도 대외 공급이 불가능하여 약정 잔량 등을 국내 메이커간의 융통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 LNG에 의존하여 요소를 생산하고 있는 아체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국제가격의 동향과도 맞물리어 내외 업계의 주목이 되고 있다.

일본 업계의 경우, 아체 등의 생산 요소를 사용하던 업자도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타 메이커 생산품이나 소스 대체 등으로 커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특히 수입난에 의한 큰 타격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 정지가 장기화 될 경우 본격적인 대책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4. 24 >

○ 중국, 금년 가리 수입 420만톤 계약

중국의 2001년 가리 수입은 기본 계약으로 이미 420만톤 정도에 이르며, 조만간 500만톤 이상에 달할 공산이다. 지금까지의 단편적 정보를 근거로 한 대략적인 수량인데, 이 상태로 나간다면 가리 수입 배당인 년간 600만톤은 머지않아 매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인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2001년의 가리 수입 계약은 첫째 IPC의 러시아 제품 150만톤(시노켐), 둘째 Canpotex의 캐나다 제품 120만톤(농자 공시), 셋째 APC의 요르단 제품 40만톤, 넷째 DSW의 이스라엘 제품 30만톤 등 합계 340만톤이다. 여기에 캐나다 제품 40만톤 상당(시노켐), 러시아(우랄) 제품 30-40만톤 등도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전체는 대충 420만톤 정도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별도로 수의계약, Spot 계약 등도 제법 있음직하여 420만톤 계약과 더불어 계약고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그럴 경우 500만톤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더구나 2001년 후반의 계약까지를 가산하면 연간 수입 배당이 600만톤에 근접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2000년의 수입실적을 웃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국의 가리 수입가격은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고 이 점에서는 당면한 가리의 국제 가격에도 안정성을 주게 된다. 중국의 해외 화학비료 수입은 가리만이 순조롭고 인산비료 (DAP)나 NPK는 감퇴 경향이다.

또 중국의 화학비료 문제로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부터 요소는 수입을 멈추고 수출로 전환되어 있어 지금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해 있다. DAP에서는 금년의 수입 배당을 200만톤으로 하여 전년보다는 반감 상태가 되고, NPK 비료도 감축할 방향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4. 23 >

○ 요소 국제시황

최근의 요소의 국제시황은 일반적으로 보합 시세 또는 하강 기류로 인도네시아의 일부 생산 정지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않은 채 약세 수준으로 변해갔고, 흑해 선적은 대세가 FOB 100\$ 이하인 90\$로 하락한 것 같다.

업계측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시황은 전체적으로 약세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

앞으로 어떻게 변동하는 것 일까가 초점이 된다고 한다.

요소의 국제가격은 부단히 강약을 반복하면서도 작년 중반부터 금년 초까지는 비교적 안정속에서 변해왔다. 그러나 최근은 보합 시세 또는 하락 기류로 특히 흑해선적은 FOB 90\$ 아래로, 중동 제품은 FOB 100\$대 전후이고, 인도네시아 제품은 110\$ 전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흑해 선적의 하락은 공급 완화를 배경으로 FOB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아시안·아체 등의 생산 중지로 공급량이 감소하는 한편, 신흥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및 베네주엘라, 이집트 등 신규 메이커의 공급 증가로 국제적인 과잉 공급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4. 20 >

♣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충질 수 있다.

< 알렉 산더 드바 >